

박사학위 논문

##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안 소 진

2011년 8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한자어는 국어 어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구자들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아 왔고, 그 결과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되 한자어라는 언어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관점, 즉 ‘언어 사용자의 실제 한자어 운용’의 관점을 도입하여 한자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화자와 독립된 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한자어라는 대상의 분포를 관찰하여 언어적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선행 연구의 주된 경향이었다면 본고는 화자가 개입된, 대상의 운용에 좀더 관심을 둘 것이다. 한자어에서 이러한 시도가 필요한 이유는 한자어의 경우 외래어적 성격의 한문 문법이 관여하는 부분과 국어 문법이 관여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자료의 내적 질서와 화자의 인식 간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단어를 만들어 내고, 저장하고, 발화하고 이해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료의 내적 질서에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된 사실은 문법적 차원의 것이고 머릿속 체계는 심리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관찰한 결과를 화자의 머릿속 체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한자어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화자의 인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자어라는 어휘 범주가 심리어휘부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화자가 무엇을 한자어로 인식하는지, 한자어의 문법적 특징 중 한자어를 보다 한자어다운 요소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한자어의 문법적 특징 중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특징이자 한자어를 보다 한자어다운 요소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한자어의 의미적인 면이며, 국어 화자의 어휘 습득 과정과 범주화 능력으로 판단하건대 한자어가 의미 속성을 중심으로 범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대상은 한자어의 구성요소가 심리어휘부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한자어 구성 요소의 문법적 자격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자어 구성요소의 인지적 지위를 고민한다. 구조적 분석에 의해 같은 기능적 지위를 부여 받는 요소들이 어휘부에서 다양한 활성화 정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저장된 단어들의 유형 빈도에 근거하여 단어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파악하는 화자의 인지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연구 대상은 인간의 머릿속이라는 추상적인 대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자료의 수집·관찰이라는 방법론만으로는 논의를 정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방법론 외에 자극어에 대한 실험 참가자의 반응 시간을 기록하는 실험적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는 이전에 탐구되지 않았던 주제를 발굴하여 한자어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대상의 분포를 관찰한 결과 기술된 언어적 사실을 보고하거나 이를 통해 화자가 한자어를 운용하는 질서를 추측하는 것을 넘어서 대상 자료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 체계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자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자료에 접근할 경우 기술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인지 능력 일반과 관련시키게 됨으로써, 심리적 실재성

(psychological reality)을 염두에 두고 한자어 관련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생긴다. 화자에 대한 고려, 심리어휘부에 대한 탐구는 언어를 운용하는 질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